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유치

도, 문화유산자원 + 첨단기술 접목, 관광 등 융합콘텐츠 개발 특화분야 설정 주효

전북도가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끌어 나갈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유치에 성공해 관련 산업 육성·지원체계에 날개를 달았다.

전북도는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사업에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해 1~3단계 평가를 거치는 열띤 경합을 벌인 끝에 전북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는 지역별 특화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간 협업과 청년 콘텐츠 스타트업에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업지원 시설 구축을 통해서 콘텐츠분야의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전북 문화유산자원과 첨단기술을 접목해 창업에서부터 유통,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기반(생태계 조성)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유치는 문체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 산학연관 전문가 TF를 구성해 심의차례에 걸친 기획회의를 갖고, 창업지원 인프라 및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협업 등을 통한 한발 앞선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문체부를 직접 방문해 사업추진 의지 및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열의를 보였고, 지난 19일 진행된 3차 현장평가에는 직접 평가장을 찾아 1시간 30분 동안 질의응답에 대응해 평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21일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사업에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해 1~3단계 평가를 거치는 열띤 경합을 벌인 끝에 전북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가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평가위원들이 매우 호의적으로 느꼈다는 후문이다.

또 유성엽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정동영 의원 등 지역구(민성동) 의원의 촉탁 지원 역시 이번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유치에 큰 역할을 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공조가 빛이 났다.

이와 함께 전북 문화유산자원(전통유산, 무형유산, 근대유산, 산업유산 등)에 4차산업혁명의 첨단기술(IoT, 빅데이터, AI, VR, AR 등)을 접목해 이를 발굴, 복원,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서 관광콘텐츠 등 융합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특화 분야를 설정해 접근한 점 역시 주요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지역거점형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를 통해서 창작자들에게

창작과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사업화 지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제작지원, 특화된 창업지원 등을 통해 중견기업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중 전주사업화촉진지구인 만성도시개발구역에 자리잡아 콘텐츠 체험과 교육, 공동창작이 가능한 오픈 스튜디오 개념의 협업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서 우선 30~40개 정도의 기업 입주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업 및 사람과의 교류가 이뤄지게 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콘텐츠를 제작해 전북 전통문화유산과 접목한 융복합 콘텐츠 창작의 씨앗을 배양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는 국비 48억원을 포함해 총 123억원이 투자되며, 청년스타트업 연 10개 육성, 문화유산분야 신규 일자리창출 150여개 등 콘텐츠 융복합 문화도시로서의 기반 마련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이 문화콘텐츠산업의 대표적 허브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축인 콘텐츠산업의 창조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운영을 맡는 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도내 유관기관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만들어 예비창업자가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김관영 '호식이 배상법' 발의

가맹본사 위법행위 시 가맹점주 배상 법적 근거 마련

프랜차이즈업체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가맹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호식이 배상법'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의 폭력사건과 최근 '호식이 두마리 치킨' 회장의 성추행 사건 등 가맹본부 경영진의 위법행위가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가맹점주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법에는 프랜차이즈 업체 경영진의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가맹점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

를 상대로 손해 배상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 금지의 의무를 신설했다. 또 가맹계약서의 기재 사항에는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의 배상 책임을 포함하도록 했다.

김관영 의원은 "현행 프랜차이즈의 계약조건으로는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애꿎은 가맹점의 몫이 된다"면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으로 오히려 리스크 등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될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안은 주승용·정인화·김종로·조배숙·박지원·이동섭·송희경·장정숙·정동영·천정배·이용호·이학재·김삼화·이종걸 의원이 참여했다. /김진성 기자

도, 서울장학숙 청운관 입사생 선발

7월 3~14일까지 신청접수

전북도는 청운관에 입사할 고시준비생을 선발하기 위해 청운관 입사생 선발요강을 발표했다.

모집인원은 30명 정도이며, 자격요건은 선발공고일 기준 보호자(부·모)의 주민등록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전북도에 있거나 타도 거주자 중 등록기준지가 전북도이면서 지원자가 도내 고등학교 출신자여야 한다.

1순위는 입법고시 5급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기술)·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차합격자, 변호사시험(로스쿨 재학생 또는 출신자) 준비생이다. /김진성 기자

2순위는 2017년도 공인회계사 1차 합격자이며, 3순위는 2018년도 입법고시 5급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기술) 국립외교원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차준비생 (2017년도 1차응시자에 한함)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인터넷(<http://seoul.jobdream.or.kr>)과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사무국 또는 서울장학숙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서울장학숙 홈페이지 (<http://seoul.jobdream.or.kr>)를 참고하거나 재단 사무국(도청 공영장 1층) 280-2935 또는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02-588-0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라북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22일, 부안 줄포만갯벌생태공원에서 산락농정 포럼(수산분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안전하게 생산된 수산물을 어업인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KMI 마창포 실장과 군산대 임용택 교수가 양식산업분야와 홍보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다.

7명의 토론자가 지속가능한 어업육성 및 수산물 소비활성화 방안에 대

오늘 '도 수산물 소비활성화 방안' 포럼

양식산업분야 · 홍보 마케팅 전략 주제발표

해 토론하며, 도, 시군, 수협 수산업경영인 자율관리공동체 내수면 생산자협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전북도는 그동안 해양수산분야 부흥을 위해 각종 해양수산분야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6년 해양수산정책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 해

양수산업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분야 2개소(130억원) 공모에도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는 도정핵심시책으로 해양수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기념일인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5월 31일 군산 신시도에서 개최하여 새만금, 농생명 등 도정 현안해결의 장으로 활용한 바 있다.

또, 인공어초 설치, 연안바다목장조성, 바다숲조성, 어초어장관리 및 수산종묘 매입방류 등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 및 자원관리 강화와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10개 사업에 160억원을 투자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전략품목의 생산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보급, 내수면 양식장 지원, 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확충 및 천일염 명품화 지원,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성 강화 등 10개 사업에 204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도내 진드기 SFTS 바이러스 검출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5개 지점(전주, 남원, 임실, 고창, 무주)에서 5월에 채집한 진드기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바이러스를 검출했다고 밝혔다.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리면 감염되는 질병으로 잠복기(6~14일)가 지난 후 고열, 소화기증상,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김진성 기자

도, 유관기관 체납차량 합동단속

전북도는 2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소재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도경찰청, 도로공사 3개기관 합동으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3개 기관은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효과적인 단속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1일 고속도로 군산요금소를 시작으로 22일 5개소, 23일 8개소에서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